

“팔경법 원점에서 무효화 하자”

법인 스님 비구로는 처음으로 비구니 차별 문제 거론
혜능 스님 “울장 오해말라” 진오 스님 “시대흐름 수용을”

선우논강, 16일 ‘바람직한 승가상’ 토론

승단의 양성평등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1990년대 불교의 여성학적 접근, 2000년대 팔경법에 대한 문제제기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2월 16일 실상사에서 열린 제9회 선우논강(대표 철오)에서는 비구·비구니 승단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논강에서는 법인 스님(대흥사 수련원장)이 비구 스님으로 처음 팔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내에서는 ‘한국 비구니 국제학술대회’, ‘세계여성 불자대회’가 개최돼, 이번의 선우논강이 비구니 위상 논의를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선우논강은 ‘조기불교 이후

중(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을 주제로 도법 스님(前 실상사 주지)의 기조강연에 이어 법인 스님이 주제발표를, 혜능 스님(해인사 울원장), 진오 스님(대둔사 주지)이 논평에 나선다.

법인 스님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오늘날 바람직한 비구·비구니 관계 정립과 승가상을 세우기 위해 팔경법은 원점에서 무효화하고, 동등한 수행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문헌=원전무결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이를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말이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쳤다”며 “부처

님도 그 시대의 사회 환경을 참조해 설법했으며, 직계 제자와 후대 제자들 간에 달랐던 의견이 후대에 결과 울장을 삼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인 스님은 여인오장설의 구체적인 모순점을 들며 “도저히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여인오장설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고,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정법이 오백년 감소했다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은 ‘무아와 연기’라는 부처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 스님은 불가의 여성차별을 논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팔경법에 대해 “팔경법이 부처님에 의해 일부만 만들어지고, 일부는 역사적 과정에서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팔경법의 조항들이 시대 상황과 법 정신에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승가의 위계는 출가한 연령으로 확립되

며, 깨달음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비구·비구니의 상하 위계문제는 명백한 불평등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친설이라면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비구니를 보호하고 비구니 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특수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인 스님의 주장에 대해 논평자 혜능 스님과 진오 스님은 뜻을 달리하고 있어 이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혜능 스님은 “울장은 불설이기 이전에 지금까지 승단을 유지시켜온 승단의 존재 근거”라며 “세간의 법으로 출세간의 법을 해석해선 안되며 울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울장에 대한 이해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 기본 교육 커리큘럼에 ‘계율’을 공부할 기간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논평문에서 비구니와 비구 용어를 바꾼 팔경법을 제시한 진오 스님은 “팔경법은 생명존중과 평등사상을 가르친 부처님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팔경법의 폐지보다는 시대흐름에 수용 가능한 양성 평등의 정규를 제정해 변화하는 교단을 만드는 것이 한국 불교의 글로벌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박사님, 별과 어떻게 대화하나요?”
2월 4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열린 제1회 불교 어린이 천문학 교실에서 이시우(사진 왼쪽) 천문학 박사와 어린이들이 망원경을 통해 별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이시우 박사는 “별을 보면 순수해 지고 순수해지면 더 불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원장 초청 대법회
고우 스님 ‘선의 본질과 의미’
2월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

현대불교 제9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2월 14일 오후 2시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영축총림 방장 초우 스님 추천

4일 통도사 임희서 만장일치
영축총림 통도사의 차기 방장 후보로 현 부방장 초우 스님(사진)이 추천됐다.

통도사는 4일 오후 2시 감로당에서 제 37회 임시 인회를 열고 영축총림 통도사 차기 방장에 초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중앙총회에 추천했다.

19명의 재직 위원 중 18명의 임회 위원 스님이 모두 참석해 가운데 열린 이날 임회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초우 스님은 임회 위원 스님들의 추천을 수락하면서 “대중스님들의



뜻을 모아 총림의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방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주지도 산중 스님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초우 스님은 1947년 출가, 73년 통도사 주지, 1981년 조계종 중앙총회 수석부회장,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할’

뜻을 모아 총림의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방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주지도 산중 스님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초우 스님은 1947년 출가, 73년 통도사 주지, 1981년 조계종 중앙총회 수석부회장,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그림·조태호

- 혜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봉은사 육조단경 논강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지(宗旨)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轉法度生)입니다. 그 중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곧 선가(禪家)의 총지입니다. 그러므로 조계종의 법맥(法脈)은 부처님의 연화미소(蓮花微笑)를 이어 보리 달마에서 육조 혜능으로 이어지는 삼십삼조사의 가르침과 할(喝)을 놓아 천하를 호령하였던 임제 선사(臨濟禪師)의 가르침을 백으로 삼은 것입니다.

육조단경은 예로부터 선종(禪宗)의 제일 경전이 되어왔고 선문제파(禪門諸派)의 총지가 쏟아져 나온 원천이 된 경전입니다.

이에 봉은사 봉은학림에서는 제방에서 수행하시는 선사 스님과 학문에 몰두하시는 학인 스님 그리고 재가 학자들을 모시고 육조단경 논강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도심 포교당에서 또는 각 사찰에서 포교활동에 몰두 하시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스님들과 좀더 깊은 공부를 통하여 신심을 키우고자 하는 재가 신도들이 함께라는 사부대중 부차 논강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주지 雪潭 圓慧 합장

일지	날짜	주제	논주	논사	진행
1강	2.21	육조단경 사상(돈오건성)	해국스님	-	영진스님
2강	2.28	육조단경 사상(좌선외의 정미)	해국스님	-	영진스님
3강	3. 6	육조단경 내용(정리(철문))	해국스님	-	영진스님
4강	3.13	육조단경에서 대승불교 수용	성본스님	-	법인스님
5강	3.20	육조단경(무상계)	지안스님	정각스님	미역신 차 차 석
6강	3.27	육조단경(빈아-승반)	이종표	각목스님	박인성 용학스님
7강	4. 3	육조단경(불성사상)	김진태	세등스님	김자성 김호성
8강	4.10	육조단경과 실천수행	고우스님	-	영진스님

논강일정표

봉은사 육조단경 논강

삼보본 無樹 明鏡亦非空 佛土常清淨 何處染塵埃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흙이 아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 티끌이 더러울 수 있을까?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기간 : 불기 2548(2004)년 2월 21일(토) ~ 4월 10일(토)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보우당 • 카페 : cafe.daum.net/haglim
- 참참비 : 100,000원(교재 제공)
- 접수 : 봉은사 포교교육팀(516-5652, 3218-4811~17)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 ☎511-6070~4